

캐나다 앨버타(Alberta) 소재 어류 종묘장에서 선회병 발생

캐나다 식품검사청(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앨버타(Alberta) 주에 위치한 어류 종묘장에서 선회병(Whirling Disease)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회병은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에 있는 존슨 호수(Johnson Lake)에서 올 8월에 최초로 발병된 적이 있다. CFIA에 따르면, 8월에 최초로 선회병이 발생된 이후 추가적으로 8번의 발병사례가 있었으며, 그 중 한 곳이 앨버타 중에 위치한 종묘생산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병 종묘양식장 이름은 지역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알려지지 않고 있다. CFIA는 앨버타 주에 있는 어류 축양시설을 대상으로 선회병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회병: 믹소보루스 기생충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며, 감염된 어류는 물속에서 회전유영하는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나타냄

◆ 일자 : 2016. 10. 17.

◆ 출처 : The Fish Site

<http://www.thefishsite.com/fishnews/28335/whirling-disease-confirmed-in-alberta-fish-hatchery/>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 잉어의 허피스바이러스병(KHVD) 발생

루마니아의 루고지(Lugoj)시에 위치한 잉어 양식장에서 잉어의 허피스바이러스병(KHVD)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양식장은 노지양식시설로 3.5톤 정도의 잉어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그 중 KHV감염증에 의하여 약 14%의 이환율과 1%의 폐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HV발병의 근원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사진) KHVD가 발병된 루마니아 루고지 시(적색표기)

◆ 일자 : 2016. 10. 20

◆ 출처 : The Fish Site

<http://www.thefishsite.com/fishnews/28353/koi-herpesvirus-outbreak-reported-in-romania/>

네덜란드 연어의 아메바 아가미병 해결에 대한 돌파구 찾나?

네덜란드의 연어과 어류 우수종묘생산 업체로 알려진 헨드릭스 제네틱스(Hendrix Genetics : HG사)사에서는 아가미병을 일으키는 아메바 감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전했다. HG사에서는 아가미병에 대해 저항성이 있는 친어들을 선별하여 종묘생산을 하는 방식이 아가미병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아가미병이 이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HG사에서 제시한 아가미병 해결방안은 연간 100만 파운드의 아가미병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G사 유전학부장 알라스테어 해밀턴(Alastair Hamilton)은 우수품종을 대상으로 유전자전달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로 유전자전달력 정도가 보통에서 높은 단계까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전달력이 있다는 것은 유전적 선별 적용을 위한 교과서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 로슬린 연구소의 로스 휴스턴(Ross Houston) 박사는 아가미병 저항성을 위한 선택적 육종은 한 세대당 약 12% 치료비율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아가미병을 감소키는 데에 재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 일자 : 2016. 10. 20

◆ 출처 : The Fish Site

<http://www.thefishsite.com/fishnews/28351/breakthrough-in-amoebic-gill-disease-control/>

아르헨티나 송어 양식장에서 플라보박테리움 감염증 발생

아르헨티나 노스파타고니아(North Patagonia) 저수지에서 양식중인 무지개송어에서 플라보박테리움 감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응용생태연구소(Centro de Ecología Aplicada del Neuquén)와 일본 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공동연구팀은 해당 송어 양식장을 방문하여 질병조사를 실시한 결과 플라보박테리움 감염증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양식장의 송어는 피부에 심각한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송어의 신장을 일부 적출하여 KDM배지에 배양한 결과 노란색의 세균집락(세균덩어리)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배지에 형성된 세균 집락에 대해 유전자 분석과 생화학적 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출된 세균이 플라보박테리움 사이클로필럼(*Flavobacterium psychrophilum*)으로 동정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팀은 해당 세균을 건강한 송어에 감염을 시킨 결과 똑같은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송어 양식장에서 발생한 질병은 *F. psychrophilum*의 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 출처 : Bulletin European Association of Fish Pathologists, 36(2): 59-66, 2016